



## 북일리노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화해사역세미나



### "건강한 교회를 위한 관계와 소통의 지혜"

관계와 소통의 지혜라는 말씀을 들었을때.. 쉬우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북일리노이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연합회가 주최한 화해사역세미나가 지난 6월 24일(토)에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로 장학순 목사님(한인 목회강화위원회 사무총장)을 모시고 추진되었다.

화해사역을 통해 배운것은, 화해사역을 실천하기 위한 첫 단계는 갈등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하여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나아가서 우리 삶에 선한 열매를 맺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관계의 기법을 배우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성찰을 통한 신앙과 인격의 성숙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

첫 만남이었을 때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부터 서로 이끌리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지내다 보면 대화, 소통을 나누다 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음을 알게 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 의견을 말할 하다 보면 다들려고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닌데.. 한쪽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여 얼굴 붉히는 일이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된 일이 있었다..(상대의 생각과 좋은 점을 이해 해주고 나와 다른 점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 쉽지는 않겠지만 .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겠다는 마음을 새겨 보았다 ) 어느 한쪽이 배려와 인내를 해 주지 않으면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회상해 보았다.

조약돌은 처음부터 매끄럽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어 보면서 이제 중년의 나이 (요즘 평균 수준 나이에 의하면 ) 청년의 시기이니..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으니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재자의 해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화목하게, 지혜와 사랑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어 본다



(글: 김영순 집사, 북일리노이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연합회, 사회봉사부장, 남부 감리교회)

> English



**“The Wisdom of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for a Healthy Church”**

When I heard the lecture on “Wisdom of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I learned many skills that I thought were simple but were much more difficult to incorporate effectively than they first appeared.

On June 24, 2017,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Seminar,” was held at the First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Rev. Kwang Tae Kim) The speaker was Rev. Paul Hak-Soon Chang, an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Ministry Plan of GBGM from New York.

I learned that the first step to reconciliation is to hav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onflict and to use it as an opportunity to lead to a fruitful outcome. The seminar was not simply a lecture on relationship techniques, but it incorporated self-reflection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one’s relationships and faith.

When I first met friends at church, I began to feel a sense of invisibility from each other in our relationships. When conversing and communicating, I realize that I had a different way of thinking. In the middle of our conversations, I wanted to share my thoughts, but didn't want to argue in case someone didn't agree with my opinions. Because we are not mind-readers it is hard to gauge one’s mood or potential for disagreement. I’ve come to realize that I can learn to understand other people’s thoughts and take their opinions to heart. In the end, I try to love the person with the love of a mother to find reconciliation in my heart.

I recalled that there was a great difficulty in maintaining a relationship unless one side cares and perseveres. Seeing that a pebble was not smooth from the beginning.

Now I am in my middle age (according to the average age at present) I’ve realized again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s a mediator one should find an unbiased resolution, as the gift of the Lord is to be a child of God.



I will once again, remember the words of reconciliation, wisdom and love, to be like Salt and Light as the gospel says.

(Written by **Young Soon Kim**, Northern Illinois KUMW Network , KUMC of South Suburban Chicago, IL)



##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환경세미나



###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환경세미나-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연합회가 주관하는 환경세미나가 6월 17일 오후 3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북부 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환경세미나로서는 처음 열리는 것이라는 데 먼길을 와주신 이성은 장로님(전 여선교회 본부 이사)와 김명래총무님(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께 참 감사했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 "참 아름다워라"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침해,저녁놀방,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산봉우리가 우리들 마음 속에 그려졌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거라는 기대감으로 이번 행사를 가졌습니다. 세미나가 시작 되기전 처음 한시간은 김명래 총무님께서 여선교회의 처음 시작에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여선교회가 처음에 시작한 것도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 듯이..오늘의 이 작은 모임이 자연의 회복과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부 순서로 시작된 환경세미나를 위해 이성은 장로님께서 power point 를 꼼꼼히 준비해오셨습니다. 환경오염이 미치는 영향을 비디오투영하면서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즉 온실가스들이 대기로 들어가 잔류하면서 그들이 온실효과로 내류권의 기온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가뭄 및 사막화 그리고 홍수등 자연 피해가 동반되며 인류 보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1979년부터 국제사회는 기후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전구를 LDD 로 바꾸기, 교회에서 스타이폼 안쓰기,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사용되니 되도록 안 쓰기, 나무젓가락 안 쓰기, 마트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봉지 대신 천으로된 장바구니 쓰기, 컴퓨터 복사할 때 종이 뒷면 사용하거나 아껴 쓰기, 재활용으로 만든 브라운 커피 필터 쓰기, 가정에서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덜 쓰기, 외출 시에 컴퓨터와

가전제품의 스위치 끄기, 친환경 세제 만들어 쓰기...소소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땅은 우리 아이들의 것을 빌려쓰고 있다는 말이 내내 생각납니다. 녹색 세상을 녹색으로 지키자는 '마음의 결심'을 해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글: 이재숙 권사, 뉴잉글랜드 연합회 임원, 북부 보스톤 한인 연합감리교회)

> English

"The earth is getting hotter"

Environment seminar, organized by the Korean UMW, was held on June 17 from 3:30pm-8:30pm, at The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This is the first seminar organized by the Korean UMW.

We want to thank Grace S. Lee who was a director of National UMW Office and Myungrae Kim Lee who is a executive director of National Network of Korean UMW for coming a long way.

Before we started the seminar, we sang hymn 78 together, "Gods of Our fathers, Whose Almighty Hand." We pictured God's word, the sunrise, the stars, the ocean and the mountains. Through this seminar we hoped to learn how to do little things to help protect and recover our environment. While we do this we can become closer to God.

In the first session, Myungrae Kim Lee explained the entire history of the Korean UMW. "The Korean UMW started out like a little seed. That seed grew in to a tree and then spread to become a forest. Like this, the little things you do every day, are like a seed that will grow and help recover this world."

In the second session Elder Lee prepared an amazing power point. We learned about CO2 emission and how that is



trapping greenhouse gases in our atmosphere. Warming our planet, causing the polar ice caps to melt and rising sea levels. We learned that the change in climate is also causing sever rain and drought.

To prevent this, world leaders convenience in Paris, France and held the first Climate Conference in 1979. We also gathered together to discuss the little changes in our lives that can help the environment. We learned that we can use LED light bulbs that use less energy. Stop using disposable dishware/silverware for church functions such as paper plates, Styrofoam cups and wooden chopsticks. We can also help by using reusable shopping bags instead of plastic or paper bags.....green soap making....



We are borrowing this world from our children. We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is world for our children and their future.

"God looked at our effort which we had made, and he was very pleased." That was our wish which we want to hear His word.

(Written: **Jae Sook Lee**, New England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officer, North Boston Korean UMC)



##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찬양제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

풍성한 장미의 꽃내음이 지나가고 어느새 6 월을 맞이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시작과 함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찬양으로 세상에 알리는 북가주 연회 여선교 연합 선교 찬양제가 6 월 17 일 토요일, 산타클라라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1 부 순서 후에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리며 영광의 주님이 온 세상에 올려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처음으로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와 2 세 교인과 다민족 교인이 다수인 NCM 연합감리교회가 참여하여 찬양의 열기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모든 회원이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으로, 율동으로 표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여선교 연합 찬양제에 우리의 헌신을 세워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열심과 믿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모아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북가주 연회 여선교회 연합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모임과 행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이 모든 달란트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에서 모범을 보이고 각 개인의 성찰을 꾸준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과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권면 그리고 홍보해 주신 북가주 목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북가주 여선교회 모든 회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북가주 연회 여선교 연합회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글: 최만금 권사,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산타클라라교회)



## > English



To our worship-deserving Lord...

With the sweet scent of roses wafting through the air, the month of June came upon us.

On Saturday, June 17, in the midst of the hot summer, the Northern Cal-Nevada United Women's Worship Night was held at Santa Clara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With fervour and zeal to worship our Lord and show the world, the event opened.

Above all else, we lift up glory and honor to our God, who guided our planning and preparation. The first part of the evening consisted of a worship service, in which we partook in a sermon and sang praises. Following this, we began the presentation of performances, performances we had been preparing and working on to

bring glory and honor to God.

This year, we saw the inclusion of two new churches to our Worship Night: NCM and Fresno KUMC.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the event, we feel incredibly blessed and thankful.

Through all the efforts of the participants, through their singing and their dancing and their praising, the presence of God was tangible and evident throughout the night.

Our participation in the Lord's plan was built up through our contributions in the United Women's Worship Night. Though we are lacking, the fruits of our efforts and faith in the Lord were made evident and this became a source of gratitude and thankfulness to God. The night was a time for us to thank God for His grace and His sovereignty.



The master of the United Women's Gathering is God alone. All of the events and gatherings are solely to bring glory to God alone and to nurture and growth our spiritual lives and to bring revival in our hearts. Through the varied talent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Women's Association, we hope to serve our Lord, alongside with Scripture and prayer. As a result of this, we hope that our members will become role models who continue to align their hearts and efforts with God with diligence.

We thank all the participants and attendants of our event with the hope that through it, God's grace was

experienced in full. We also thank all the pastors for their prayers and guidance, as well as their announcements to advertise the event.

With each day, we praise and worship the Lord and bless everyone in the Northern Cal-Nevada conference in the name of the Lord.

Even today we worship the Lord who accepts our efforts and contributions!

(Written: **Man Kum Choi**, President of Cal-Nevada Conference KUMw Network, Korean United Metho dist Church of Santa Clara Val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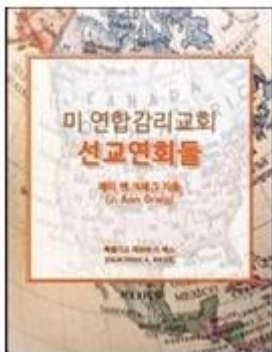
## 2017 선교학교(Mission u) 안내



### 연약공동체의 삶

에비 맥도날드 지음

이번 선교학교 영성교제는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연약에 대해 살펴보고, 연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 대해 다루고있다. 이 공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울것이다.



### 미 연합감리교회 선교연회들

제니 엔 크레그 지음

이 책은 연합감리교회가 오늘날의 조직으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세계의 선교연회라는 렌즈를 통해서 알려주고있다:

연합감리교회의 다양성 속에서 3 개의 선교연회

알래스카 연합감리교회 연회, 레드 버드 선교연회,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 - 가 조직된 역사와 환경과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 남가주 연합회

일시: 7 월 6(목) ~ 8 (토)

장소: CALIFORNIA LUTHERAN UNIVERSITY

60 West Olsen Road Thousand Oaks, CA 91360

- 1. 영성과목: 언약 공동체의 삶; 강사: 신병욱목사 (로즈펠리츠 연합감리교회 )
- 2. 지리과목: 미 연합감리교회 선교연회들; 강사: 김명래전도사(전국연합회 총무)

● 북가주 연합회

일시: 8 월 11 일(금) – 8 월 12 일 ( 토)

장소: Asbury United Methodist Church: 4743 East Ave, Livermore, CA 94550

La Quinta hotel in Livermore: 7700 South front Rd, Livermore, CA 94550

- 1. 영성: 언약 공동체의 삶; 강사: 조선훈 목사 (Evergreen Valley UMC in San Jose)
- 2. 사회정의: 기후정의 ; 강사: 명은주 목사 (Patterson Federated Church)

● 북조지아 연합회

일시: 7 월 21 일 (토) – 22 일 (토)

장소: Georgia Baptist Conference Center

영성: 언약공동체의 삶 ; 강사 : 이상재목사 (아틀란타 한인교회)

● 뉴잉글랜드연합회

일시: 7 월 21 (금) –22 일 (토)

장소: Southren New Hampshire university

영성: 언약공동체의 삶; 강사: 홍종욱목사(비전교회)

● 뉴욕연합회

일시: 7 월 15 일 (토)

장소: The Hilton Stamford Hotel 1 First Stamford Pl. Stamford, CT 06902

영성공부: 언약공동체의 삶; 강사: 최덕희 목사

● 델라웨어 – 볼티모어 연합회

일시: 8 월 5 일 (토)

장소: 볼티모어 에덴교회

영성공부: 언약공동체의 삶; 강사: 최희덕목사, 김명래전도사

● 대뉴저지 연합회

일시: 7 월 22 일 (토)

장소: 아콜라 교회, St Paul's UMC in Bay Head

- 1. 영성공부: 언약공동체의 삶; 강사: 나정용목사(뉴저지 연합감리교회)
- 2. 지리공부: 연합감리교회 선교연회들; 강사: 양기영목사

● 북일리노이 연합회

일시: 7 월 22 일 (토)

장소: Downers Grove FKU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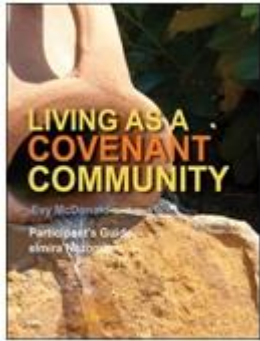
영성공부: 언약공동체의 삶; 강사: 현혜원 목사

Mission U

Mission Studies 2017

- Spiritual growth: Living as a Covenant Community
- Issue study: Climate Justice
- Geographic: Missionary Conferences of the U.S.
- Children's Study: Joined and Held Together (Missionary Conferences)
- Youth Study: In Mission Together (Missionary Con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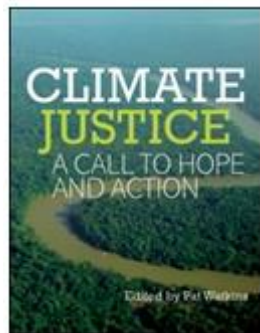
Each year, United Methodist Women members prepare for faithful living and action by studying mission studies. Mission studies are offered each year – a geographical, topical, and spiritual growth study. These studies motivate, inform, and enrich our commitment to global ministry.



### **Living as a Covenant Community: Spiritual Growth Study 2017**

This study examines major covenants throughout the Bible and what they reveal about God's character and eternal love for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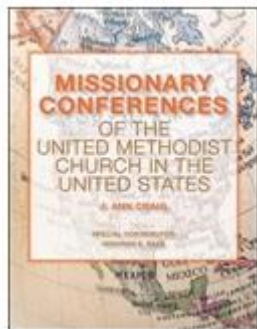
It will enhance your understanding of how God works with us, in us, and through us.



### **Climate Justice: Call to Hope and Action**

Pat Watkins

This study invites you to understand climate justice, which means setting right our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nd the earth. Climate injustice is the result of climate change. The study will challenge you to see what needs to happen for climate justice to become a reality in the world today. The church needs to more powerfully model a way of doing it differently. This will entail not just focusing on the environment, but also asking hard questions regarding financial profit, a growing economy, our independent way of thinking and our understanding of efficiency. 108 pp.



### **Missionary Conferenc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the United States

The aim of the study is to give an overview of the three missionary conferences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contexts out of which they grew and their current engagements: The Alaska United Methodist Conference, Red Bird Missionary Conference, and the Oklahoma Indian Missionary Conference are a hybrid of home and international missionary work.

What does the future look like for these conferences? Broad-ranging conversations are taking place around this question.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and the missionary conferences are exploring best operational and structural options for maximizing mission and ministry going forward in these unique locations. These

dialogues, different in each case, have begun and will take place across the 2017– 2020 quadrennium. The objective is mutuality in mission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which provides the heartbeat of all productive mission within the United Methodist connection.

Study guide by J. Ann Craig with special contributions by Deborah Bass.

Leaders guide by Judith Pierre-Okerson.

● Cal-Pac KUMW Network

July 6 ~ 8 , CALIFORNIA LUTHERAN UNIVERSITY  
60 West Olsen Road Thousand Oaks, CA 91360

● Cal-Nevada KUMW Network

Aug. 11~1, Asbury United Methodist Church: 4743 East Ave, Livermore, CA

● North Georgia KUMW Network

July 21 ~ 22, Georgia Baptist Conference Center

● New England KUMW Network

July 21~ 22, Southren New Hampshire university

● New York KUMW Network

July 15, The Hilton Stamford Hotel 1 First Stamford Pl. Stamford, CT 06902



● Delaware-Baltimore KUMW Network,  
Aug. 5 , Eden KUMC, Baltimore , MD

● Great New Jersey KUMW Network  
July 22, Arcola KUMC , NJ

● Northern Illinois KUMW Network  
July 22, Downers Grove FKUMC, IL



## 상식; 오이쥬스



### 매일 오이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 6 가지

오이 물을 마시면 수분을 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오이 물에는 간과 피부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오이 물은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음료가 될 뿐 아니라 건강한 간식이 되기도 한다. 열량이 높고 탄산이 든 음료를 대신할 것을 찾고 있다면 오이 물을 마셔보자. 오이 물을 마셔서 효능을 보려면 일주일에 2-3 번은 마셔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 1. 비타민 원이다

물을 마실 오이를 넣어 마시면 비타민 A 와 C를 섭취할 수 있다. 산화방지제인 비타민 E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단기간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이 물을 마시면 담배나 오염 같은 외부요인에서 세포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게다가 오이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어혈이 생기는 것도 예방해준다.

#### 2. 혈압을 낮춰준다

물에 오이를 넣은 물은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다. 오이는 수분함량이 높고 하루에 필요한 양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에 좋고 심장 기능도 향상해준다. 또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다.

#### 3. 입맛을 떨어뜨려 준다

오이는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다. 오후에 오이 물을 마시면 배고픈 것을 잊을 수 있다. 또 몸에 수분을 유지할 수도 있다. 오이를 마시면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 때까지 배고픈줄 모르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 4. 피부에 좋다

-이미 말한 것처럼 오이 물을 마시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꾸준히 마시면 더 부드럽고, 더 젊고, 더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이 물은 혈액순환에도 좋아 체액 저유도 막을 수 있다.

-실리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해독 효과도 있다. 독소와 관련된 여드름이나 염증 같은 문제를 치료해준다.

-오이 물을 마시면 몸을 해독하고 윤기 나는 피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5. 간에도 좋다

오이 물은 해독, 총혈완화,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비타민 A,B,C 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칼륨 인 같은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다.

-이런 영양분은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 재생능력을 향상해준다.

-오이 물을 마시면 간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다.

-염증을 감소하거나 혈류의 지방함량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 6. UV 광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좋다

오이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UV 광선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콜라겐 생성도 늘려주고, 햇볕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피부도 더 생기있게 보이게 해준다. 뼈와 손톱 건강도 향상해준다. 면역 시스템이 이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 오이 물 만드는 방법

재료

오이 1 개

물 1.5 리터

레몬 1/2

치아씨드 1T (10g)

- 오이 껍질을 벗기고 갈기 쉽게 잘라준다
- 레몬 반 개의 즙에 오이, 물, 치아씨드를 믹서기에 넣는다
- 모든 재료가 잘 갈릴 때까지 믹서기로 간다

가볍고 더 시원한 이 음료로 신체 pH 수치를 균형 맞추고, 산 수치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오이 물은 가볍고 청량감 있으며 효과도 많다

(글: 이귀옥 권사, 전국연합회 문화부장, 뉴잉글랜드 연합회 임원, 북부보스톤교회)

## > English



### Reasons Why You Should Drink Cucumber Water Everyday

Cucumber water is rich in vitamins and minerals that can help improve your liver and skin. It is a good drink for everyone in the family. If you are looking for a healthy drink instead of a high calorie, carbonated beverage, drink cucumber water. To gain the full benefit of cucumber water, you should drink it at least 2-3 times a week.

1. It is a good source of vitamins.

Cucumber water contains vitamin A, vitamin C, and an abundance of Vitamin E, of which C and E are antioxidants. Additionally, cucumbers are rich in minerals and other nutrients, which can keep eosinophil levels in check.

2. Blood pressure reduction.

Cucumber water is also effective for lowering blood pressure. Cucumbers have a high moisture content and contain the recommended amount of potassium per day, which is good for blood circulation and improves heart function. It also has the effect of relaxing the muscles.

3. It reduces your appetite.

Cucumbers are a food that helps you feel full. Drinking cucumber water can help curb hunger and keep your body hydrated. If you drink cucumber water in the morning with breakfast, it can help curb your hunger until lunchtime.

4. It is good for your skin.

Cucumber water helps keep your skin hydrated. Drinking cucumber water not only steadily makes the skin softer, younger, and more elastic, but it is also good for promoting blood circulation and maintaining proper fluid levels. It contains natural elements and has detoxifying effects. It helps treat problems such as redness and inflammation associated with toxins. It will also help detoxify your body and rejuvenate skin.

5. It is beneficial for your liver.

Cucumber water is also effective for detoxification, decongestion, and improvement of liver function. Cucumbers are rich in vitamins A, B, and C, and contain natural elements and compounds such as calcium, potassium, and phosphorus. These nutrients protect hepatocytes (main liver cells) and improve their ability to regenerate. Cucumber water is also effective at reducing inflammation and reducing fat content in the blood stream.

6. Improves protection against UV rays.

Cucumbers contain a lot of Vitamin C which increases collagen production, protects the skin from sunburn, invigorates the skin, and improves bone and nail health. It also helps the immune system to function ideally.

### How to make cucumber water

Ingredients:

1 cucumber

1.5 liters water

2/1 lemon

1 teaspoon of Chia seeds

Step 1: Peel off the cucumber skin and cut the cucumber into little pieces.

Step 2: Add the cucumber pieces, lemon juice, water, and chia seeds into a blender and blend until smooth.

(Written: **Kwi Yun**, New England Conference KUMw Network Officer, North Boston KUMC)



독서 프로그램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 샘터

이 책은 2009년에 이미 고인이 된, 서강대 장영희 교수의 수필집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듯이, 개인적으로 장영희 교수의 책이 나에게겐 그렇다.

책장에 꽂혀 있는 것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미 읽었던 글이라도 다시 읽으면 새로운 감동을 준다. 장영희 교수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녀의 글 어디에서도 어둡거나 낙심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인생의 많은 장애물 앞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대하고 이겨나갔으며,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 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허공에 뜬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그녀가 악착같이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함께 갖을 수 있는 희망이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은 그녀가 암 투병을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쓴 글이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낸 것이 기적이지만, 그 고통이 너무 아파서 기적 같은 삶이 아니라 완벽하게 예측가능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인생이란 모든 게 기적이 아니던가, 우리가 살아 온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 또 앞으로 살아 갈 날들도 모두 기적이 아닐까? 장영희 교수가 원했던 기적, 살아온 기적, 그리고 나누고 싶은 기적을 함께 들어보자.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아직도 구입가능하다.

( 글: 송은순 사모, 전국연합회 영성부장, 독서프로그램 위원장, 델라웨어 한인교회)

## > English

### Lived Miracle, Living Miracle by Young Hui Jang

This book is an essay by Professor Young Hui Jang at SoGang University, who passed away in 2009. There are people in life that make you happy simply by thinking about them and personally,

Professor Jang's book is like that. Just seeing the book on the bookshelf makes me feel happy, but on a deeper level, imparts greater wisdom every time I read it. Professor Jang was disabled with infantile paralysis, but in her writing you cannot find any darkness or discouragement. Despite the many obstacles in her life, she lived with passion and fought with hope. This hope is not an abstract idea, but is exemplified by her story of persistence in life and will bring a genuine sense of hope to the readers.

Lived Miracle, Living Miracle was written while Professor Jang was recovering from cancer. Even living with pain everyday was a miracle itself, but she wanted to express that the true miracle was to persevere and live everyday despite the pain and suffering.

Is life itself not a miracle? Is the life that we have lived, and the life we are about to live, not a miracle? If you desire a testimony of hope, read and share in the miracles of life through Professor Jang's essay. Although the book is almost a decade old, it is still available for purchase.

(Written by **Grace Song**, N NKUMw Spiritual Growth Coordinator, Director of Reading Program Committee, Delaware KUMC)



## 2017년 전국지도자훈련 안내



### 2017년 전국지도자훈련

주관: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주제: 평화와 여성공동체

날짜: 2017년 9월 28일(목) - 10월 1일(주일), 3박 4일

장소: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신청마감일: 2017년 6월 30일

등록금: 1인 \$350 (숙박비, 식비, 세미나비 포함)

참가인원: 150명 (1세 한인여성교회 회원 130명과 Young Women 20명, 선착순)

장학금: (1) 여행경비 장학금 - 비행기 요금

최대 \$150까지, 자동차 마일리지 50%를 훈련후 지급

(2) 30세-40세 이하의 젊은여성 장학금 - 등록비 중 \$200을 훈련후 지급

(3) Young Women 장학금 (18세-30세 이하 UMC 소속의 미혼여성) - 등록비 \$350 Free

. Young Women Program: 9월 29일(금) - 10월 1일(주일)

어머니와 딸을 함께 초청합니다.

. 등록방법: 등록신청서를 [www.nnkumw.org](http://www.nnkumw.org) 에서 [download](#) 받으세요.

### > English

#### 2017's NNKUMw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Theme: Peace and Women's Community

Time: Sept. 28 (Thurs.) - Oct. 1 (Sun.), 2017

Place: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Eligibility: Members of Korean UMW (First 130 registrants) and Young Women (First 20 registrants, Participants for the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in Seoul or US)

Registration Fee: \$350 (includes room, board, and program fees)

Deadline: June 30, 2017

#### Scholarships

(1) Travel: 50% of airfare (or driving expense), maximum \$150, will be reimbursed after the event. You may donate your travel scholarship for the leadership training of young women as future leaders.

(2) Scholarships for **young adult women**: From 30 yrs old to 40 yrs old woman who demonstrate leadership qualities. We will reimburse \$200 of the registration fee after the event.

(3) **Young woman**: From over the age of 18 yrs old to under the 30 yrs old single woman get free registration fee.

(4) We invite mothers and daughters to the Young women's Program: Sept. 29th - Oct. 1st.



If any young woman want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on the 28th , she is welcome to  
\* You can [download applications](#) and guidelines at our web-site [www.nnkumw.org](http://www.nnkumw.org).

( 글:김영래 총무, 전국연합회 총무)



2017 NNKUMw's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Young Women

# NNKUMw

## 2017 National Training: Young Women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NNKUMw) will hold its National Training at Scarritt Bennett Center in Nashville, TN on September 29 through October 1, 2017. The young women will work together to discuss the theme of "Peace and Covenant Community". There will be conversations on various topics of peace and volunteer opportunities to practice peace in the local community. This will be a great time for young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from all over the nation to gather and meet one another to create new friendships. If you are interested in attending this training, please feel free to contact Sunmin Park, the young women coordinator of NNKUMw. Space is limited to 20 participants, therefore it is highly encouraged to apply as soon as possible.

### Event Theme

Peace and Covenant Community

### Event Dates

September 29- October 1, 2017

### Participants

20 KUMC Young Women

### Scholarships

Travel Expense  
50% or up to \$150

### Registration Fee

\$350 : Full Scholarship for  
Full Participation

### Registration Deadline

July 31, 2017

### Contact Person

Sunmin Park  
sunminita@gmail.com

\* You can [download applications](#).



총회공고

오는 9 월 28 일 (목) - 10 월 1 일(주일) Nashville, TN 에서 2017 한인여성교회 전국지도자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는 10 월 1 일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총회가 있음을 회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여성교회전국연합회제 8 차총회**

**일시 : 2017 년 10 월 1 일(주일) 오전 6 시 45 분**

**장소: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김리자**

The 2017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Event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will be held from September 28 through October 1, in Nashville, TN.

The general meeting will be on October 1, 2017, as indicated in the NNMUMw bylaws .

**8th General Meeting of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Time: October 1, 2017, 6:45AM**

**Place: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Lija Kim, President,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한국여성교회 역사 시리즈-하란사**



**한국 여성 최초의 문학사.하란사**

문학박사 “하란사”

“조선의 여성들이 마치 꺼진 등불처럼 마음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찌 그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화학당이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한 젊은 기혼여성이 꺼진 등불을 앞세우고 학교를 찾아와 자신의 입학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둠에 갇힌 조선 여성들의 마음을 꺼진 등불에 비유하며 야심 차고 단호한 모습으로 교육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피력한 조선 최초의 문학사 하란사의 이화학당 입학에 대한 일화이다.

평남 안주에서 1875년에 태어난 하란사의 원래 성은 김 씨였다. 개항장 인천지역의 통사 사무를 감독했던 인천 감리사 하상기의 후처였던 하란사는 남편과 평소 교분이 있던 선교사로부터 이화학당 입학의 추천받게 된다.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고 당시 조선의 사정과 국제정세에 밝았던 남편 하상기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의 입학에 결심하지만, 당시 소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던 이화학당은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혼여성이던 하란사의 입학에 거절했다. 청일전쟁을 목격하면서 일본이 승리한 이유로 일찍이 서구화를 추구하여 교육이 발달함에

있다고 본 그녀는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교육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꺼진 등불에 비유하며 선교사들을 설득, 마침내 그녀는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된다.

하란사는 식민지 조국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운동과 민족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신앙적이고 지성적인 준비를 이화학당에서 갖추어가면서 기독교에 입문해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얻은 세례명 낸시(Nancy)를 음역한 한자음이 하란사였다.

이화학당 졸업 후에는 젓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일본 유학을 강행할 만큼 그녀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였다. 동경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그녀는 미국의 사회상, 남녀평등의 활동 상에 대한 서재필의 연설을 듣고 고무되어 이후 미국유학 길에 오르게 된다.

하란사는 1897-1898년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대학을 거쳐 1899년 디커니스 트레이닝 스쿨(Deaconess Training School)에서 공부하였고 이어 1900년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웨슬리안대학 재학 당시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해외에서 귀국한 선교사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신앙에 대한 깊이를 더하고 선교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갔다. 6년간에 걸친 문학전공 과정을 모두 마치고 1906년 문학사(Bachelor of Literature) 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 여성 최초의 미국 문학사가 탄생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화학당 입학 이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1906년 한국으로 돌아온 하란사는 이화학당에서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는 한편, 이문회의 지도교사로 활동하였다. 학생들의 자치단체인 이문회를 지도하며 민족의 현실과 세계정세를 가르치며

학생들의 조직적이고 민주적인 역량을 키워가는 일에 집중하였다.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가 이문회의 학생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하란사가 학생들의 민족의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란사는 이화학당 교사 겸 기숙사 사감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교강에 해당하는 총교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었고, 이후 대학과가 신설되어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이 시행되자 이 대학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가 되었다. 그녀의 교육활동은 이화학당에 국한되지 않았다. 여러 학교에서 활발하게 교사로서 활동하는가 하면 전도부인 양성학교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 교역자 훈련과 교회 여성의 지도력 향상에도 힘을 쏟았다.

정동제일교회의 신도였던 하란사는 미국 유학 후 보호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1913년에는 보호여회 회장이 되어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사업과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하란사는 1916년 5월 뉴욕에서 열린 미감리교회 총회에 한국감리교회 평신도로 참여한 이후 시카고대학 신학부 연구 과정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에 몰두하였다. 이 기간 그녀는 국내의 파이프오르간 설치를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국 동포들이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열망하며 모금에 참여하였고, 1918년 순수하게 재미교포들의 성금으로 정동제일교회 벨엘예배당 재단에 파이프오르간이 국내 최초로 설치되었다.

하란사는 1919년 4월 10일 북경에서 45세의 일기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안타까운 그녀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제에 의한 한국 강점의 억울함을 세계에 호소하고 일제의 폭정을 해외에 알리고자 파리강화회의에 참석을 계획하며 북경에 머물던 중 죽음을 맞이했다는 추정도 있다.

“예수를 믿기 전 저는 인천 별감의 후첩이라는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던 아주 보잘것없는 신분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미국 웨슬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란사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여성들을 일깨우는 교육자로, 민족운동가로 달음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선 땅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이화학당의 입학을 시작으로 미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까지 민족 자존과 구국의 길을 찾아 온갖 가시밭길을 헤쳐나간 교육자이자 민족운동가 하란사, 그녀에게 비친 복음의 빛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

(글: 이미숙 집사, 전국연합회 역사부장, 베다니 KUMC, GA, / 자료: 한국여성교회 전국연합회 2017년 공과책)

## > English



### Nan-sa Ha, a Nationalist and the First Korean Woman of the Bachelor of Literature Degree

"Women of Joseon are filled with darkness in their minds, just like an unlit lantern. If they don't learn anything, how can they teach their children? "

Shortly after Ewha opened its door, a young married woman came to the school with an unlit lantern in her hand and demanded for admission. Comparing uneducated Korean women to the unlit lamp, Nan-sa Ha expressed her determined aspiration for education and became the first Korean female who was admitted to the Bachelor of Literature program.

Nan-sa Ha was born originally with a last name, Kim, in Anju, Pyung-an Nam-do, in 1875. Since she was the second wife of Sang-ki Ha, who supervised the general affairs of Incheon Open Port, she was recommended to be admitted to Ewha by the missionary who was a close acquaintance to her husband. After studying abroad in Japan, she decided to attend Ewha with help of her husband who was well informed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e of affairs. However, even with his help, Ewha did not grant admission to Nan-sa Ha on a justification that the school was lacking facilities even for the targeted students such as young teenage girls. However, her relation to Ewha did not tragically end there. After witnessing the Japan's victory during the Sino-Japanese War, she believed tha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by the westernization played a key role in Japan's victory and strongly believed in the power of modern education. She compared her invincible will for education to an unlit lantern and successfully persuaded missionaries for her to get admission at Ewha.

While Nan-sa Ha was studying at Ewha, she obtained religious and intellectual preparation in order to lead the educational and national movement for the women in colonial Joseon. This preparation also led her to be a Christian. Her baptismal name was Nancy. Later, the baptismal name, Nancy, was translated into Chinese characters as Nan-sa Ha.

Uncommonly, Nan-sa Ha's passion for education was indomitable enough for her to leave her infant child behind in order to continue her study in Japan even after graduating from Ewha. After returning from studying in Tokyo, Nan-sa Ha attended a lecture held at Jungdong Jeil Church and was inspired by the speech of Jae-pil Seo. After hearing his speech which was about American society and gender equality, Nan-sa Ha decided to go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After attending Howard University in Washington DC from 1897 to 1898, Nan-sa Ha studied at the Deaconess Training School and Wesleyan University in Ohio in 1900. During her time at Wesleyan University, she participated in

“Volunteers for Overseas Missions” in order to listen to the experiences of missionaries who returned from abroad. Her encounter with the missionaries deepened her faith and her awareness of missions. Finally, after completing her six-year studies in literature, she received her Bachelor of Literature degree in 1906. And she became the first Korean woman to receive bachelor of literature degree from an American university.

When Nan-sa Ha returned to Korea in 1906, she not only taught English and Bible at Ewha, but also served as a teacher at Imunhoe. While directing this self-governing student organization, she taught students on the reality of their nation and world affairs, and was able to focus on training students' democratic and organizational ability. Considering that the independence activist Gwan-soon Yu was a student at this organization, it is fairly easy to assume how Nan-sa Ha had influenced the students' formation of national consciousness.

Nan-sa Ha was not only accountable to her students but also partook in her role as a residence hall director, a role similar to a vice president of university in today's world. Th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department which led to a higher education for women in high school, Nan-sa Ha became the only Korean professor at the university.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vast amount of her time was spent at Ewha, her educational activities were not confined there only. She actively participated in various schools as a teacher and the operation of a training institute as a ministry.

Nan-sa Ha, a member at Jeongdong Jeil Church, became a chairperson of the Ladies Aid Society in 1913 after studying abroad in the United States. In a role of chairperson and a devotee, her logic was to put education and mission activities in the center of schools and churches. In May 1916, Nan-sa Ha attended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New York as a laity. Later, she studied theology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During this time, she also started a fundraising campaign for the installation of a pipe organ in Korea. In 1918, with the help of the donation that was collected by the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a first pipe organ in Korea was installed at the Bethel Chapel of Jeongdong Jeil Church.

Unfortunately, Nan-sa Ha suddenly died on April 10, 1919, in Beijing, at the age of 45. Although there are various speculations on her unfortunate and untimely death, it is presumed that it might have been triggered by her denunciation to the world on the unfairness of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She confronted death in Beijing while planning to attend the Paris conference to denounce the Japanese tyranny abroad.

"Before I believed in Jesus, I was a woman of indigent status who continuously received the unwarranted admonishment because I was a mistress. The only sensible explanation of how I was able to work as a nationalist even with people being aggrieved at my status and how I was able to graduate from Wesley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s an educator is all because of the gospel of Christ that had reflected on the land of Joseon."

From admission at Ewha to her death in the foreign land, Nan-sa Ha was an educator and nationalist who walked all kinds of thorny roads to find national pride and independence. To her, the Gospel was the power that would transform the world.

(Written by **Meesook Lee**, chairperson of NNKUMw history, Bethany KUMC, GA / Resource is from 2017's Program book of Korea W.S.C.S)



##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1884년**, 오하이오 연회 리벤나 지방의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원이었던 루시디아 볼드윈은 어둠 속에 살던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88 을 지정헌금하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볼드윈은 소망을 잃은 한국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성경의 밑거름 반죽에 넣어진 누룩처럼, 한국여성을 향한 볼드윈의 헌신은 커다란 사랑이 되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1885년**,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감리교 여선교사 매리 스크랜튼은 이 헌금으로 이화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절망 뿐인 한국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교육하였으며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여 여전히 영향력 있는 수많은 여성리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루시디아 볼드윈과 매리 스크랜튼의 선교열매인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 한인여선교회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1993년**, 시작된 한인여선교회는 지난 23년간 여선교회원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양육해 왔으며 2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도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여성 목회자, 미국 여선교회 본부 회장 및 이사, 연회 및 지방회 임원 등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국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며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인여선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소망합니다!**



**2016년**, 2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지도자훈련**을 통해 한인여성교회 회원과 2세 여성들은 함께 모여 나누고 배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전국지도자훈련을 위해서는 매년 6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한인여성교회 회원 한 사람이 2년 동안 \$1,000 불을 헌금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받은 여성교회 회원은, 1884년도의 우리처럼 어둠속에 살고 있는 전세계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제 2의 볼드윈, 메리 스크랜튼이 될 것입니다. 한인여성교회와 함께 우리의 헌신이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지는 선교의 새역사를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000 헌금 방법)**

- . 매달 \$45 또는 1년에 \$500 을 2년동안 전국연합회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 전국연합회는 501C 의 비영리기관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Check 발행은 NNKUMW, 주소는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후원신청서 다운받기**

자세한 문의는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mailto:mrkim81@gmail.com) / 914-473-7401 )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 2017년도 후원자 명단: 안용자, 김명래, 김리자, 이경신, 송은순, 이익화, 김순덕, 김영매

**> English**

**“Easier if we do it together: \$1,000 fund raising for NNKUMw”**

The National Network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has held the leadership training every two year since 1993. The last event was held in September in Nashville, Tennessee. The leadership training was made possible by financial support of the Women’s Division and donations from KUMW members. Many leaders who received training are currently working as pastors, officers at the jurisdictional and conference level, and Women’s Division board of directors. Many young Korean American women als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event.



The NNKUMw is a mission fruit of the UMW. Its dramatic growth has a beautiful story behind the faith in action of one UMW unit. In 1884, Lucidia Baldwin, a member of the Ohio Conference, gave the designated offering of \$88.00 to be used to educate Korean women in Korea.

She was having a difficult time after deaths of her husband, daughter and grandson all at the same time when she heard about the plights of Korean women. She sold her husband’s property and gave the offering to the Ohio UMW Conference. With this offering,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was able to send Mary Scranton as its first woman missionary to Korea and started Ewha School for Girls in 1885. She can be compared with the woman in the Bible who made the bread with yeast and shared it with her neighbors. We can say we are offspring’s of Mrs. Baldwin’s mission offering, so we owe her the debt of mission.

The members of the NNKUMw are learning, sharing, and growing together with the leadership training. We are doing our best to bear another mission fruit by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and the Bible Women’s Program abroad. To be able to achieve our goals, the leadership training plays a vital role.



Since 2007, the NNKUMw had the leadership training event without the support of the UMW National Office. We need \$60,000 for the 2017 national training event. We need your help. If many members of the NNKUMw donate \$1,000 over two years, the training event will be possible.

**It is easier if we try together!**

We can become another Mrs. Baldwin in spreading the good news of Christ to women, children and youth who are still living in the dark. We ask you to write a new chapter of mission history by enabling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to be the tool to develop future leaders for Christ.

(Ways to donate \$1,000 mission fund)

**2017 \$ 1,000 Fund Campaign supporters:** Yongja Kim, Myungrae Kim Lee, Lija Kim, Kay S. Rhee, Eunsoon Song, Ek Hwa Lee

Dorothy Kim, Young Me Kim

Monthly donation of \$45 or yearly donation of \$500 for 2 years

NNKUMw is 501c a non-profit organization registered with government. Your donation is tax deductible.

Send checks "Payable to NNKUMW,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ew York 11364

For more information: e-mail to [mrkim81@gmail.com](mailto:mrkim81@gmail.com) or call 914- 473- 7401

Copyright © 2008 [www.nnkumw.org](http://www.nnkumw.org)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All rights reserved.

한인 여성교회 연락처 :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전화 : 914-473-7401 •

메일 : [members@nnkumw.org](mailto:members@nnkumw.org)

발행인: 김리자 회장/김명래 총무/권오연 부총무/한글교정-안영숙/영문교정-Paul Lee/Web Master-김시춘